

2020 새 설계

정중순 장흥군수

# “역사·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장흥관광’ 500만시대 열것”



“역사와 문화예술, 숲과 힐링이 있는 명품 관광 도시를 만들어 유동인구 500만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시발점인 회령진성 복원, 정경달 장군의 반계사, 공예태후 탄생지 정안사, 백광홍 선생의 기양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동학 최후 격전지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힐링과 행복이 살아 있는 새로운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한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 군수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2020년을 ‘정남진 장흥 해동사 참배의 해’로 선포하겠다”며 “5000만 국민이 해동사를 찾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우리들 가슴속에 각인되도록 선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탐진강 생태테마파크와 벽천폭포 조성, 장흥읍에서 장흥담까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예약교 재가설과 교량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수변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안중근의사 사당 ‘해동사 참배의 해’ 회령진성·반계사 등 유적 복원 추진 장흥한우·수산물 등 군민소득 증대

옛 장흥고도소를 체험고도소와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예양공원을 역사 향기 숲 정원으로 조성한다.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한국 관광의 별 흥보 등을 통해 탐진강의 동·서가 함께 어우러져 힐링과 행복이 살아있는 새로운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레저-경관-건강’이 잘 어우러진 정남진 해안 관광도로와 탐진강 특강길, 로하스길, 우드랜드길과 주요 도로변에 황금사철과 후박나무 등으로 특색있는 가로수길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이와 관련 최종 선정단계에 있는 전국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실시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도 추진한다.

정 군수는 “노약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 의지를 제고하는 등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문화 여성 자력증 취약반 운영, 저소득 아동 사회진출을 위한 중장년 직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도 촘촘히 하겠다”며 “보훈 가족의 숙원인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 군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단지 장려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 등으로 친환경 농업을 40%까지 확대하겠다”며 “블루베리, 레드향, 생약초, 산두릅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특화 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흥한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와 우량 정액공급 등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말과 양봉산업도 육성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산김, 낙지 등 장흥 10대 수산물의 소득 증대에 중점을 뒀 수산소득 3000억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SOC 사업에 대해서도 “안양

### 2020년 주요 사업은

-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정남진 장흥 해동사 참배의 해’ 선포
- ▲역사와 문화예술, 숲과 힐링이 있는 명품 관광도시 육성
-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
- ▲실질적인 군민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 ▲SOC 등 장흥 미래성장 동력 구축
- ▲군민을 섬기는 소통행정 강화

수문~득량도~고흥 녹동 연륙·연도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수문~녹동 철부선 운항을 우선 추진해 연륙·연도교 건설의 당위성을 선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우산도 농촌체험 관광단지 사업의 내실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119 소방교육대, 전남소방본부와 장흥군 소방서 개청과 함께 블루 종합안전테마파크를 유치해 장흥을 안전과 소방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현대삼호중 임직원 “최고의 조선소 만들자”

무안 승달산 산행...매출 4조1800억원 달성·무재해 기원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산행을 함께하며 경영목표 달성과 무재해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무안 승달산에서 진행된 이번 산행에는 이상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사내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가했다.

산행은 목포대 박물관을 출발해 승달산 정상에 올라 다시 복귀하는 5km 코스로 진행됐다. 승달산 정상에서는 안전결의대회와 회사의 제도약을 바라는 드론 날리기

행사가 별도로 펼쳐졌다.

승달산 정상에서 이상균 사장은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2020년 올해도 우리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일구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일 열린 시무식을 통해 2020년 매출 4조1800억원과 수주 42억5000만달러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LNG선과 LNG DF 분야의 강점을 살려 경영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지난 4일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이 무안 승달산에서 경영목표 달성과 무재해를 기원하는 산행을 가졌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 강진군, 작년 관광객 256만명 다녀가

하루 7000명 꼴 ... 관광수입 1228억원 달해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이 256만명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013명이 강진을 방문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244만명을 넘어서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군은 관광객 하루 소비액 4만8000원을 기준으로 관광수입이 122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군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

석하고 있다.

특히 가우도에 기존의 झ트랙과 제트보트 등 해양레저 시설을 활성화하고 야간 경관을 확보하는 등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강진산 우수 식자재를 이용한 ‘병영 데지 불고기 거리 조성’, ‘강진 맛집 50개소 육성’ 등 먹거리도 발굴했다.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조명하는 재현 공연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는 관광객들이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군은 오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대 최대 관광객 돌파를 기념하고 ‘관광객 500만명 시대 원년의 해’로 선포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체류형 관광지 육성으로 강진을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통해 방문할수록 행복해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기자 노트

#### 행정사무관이 ‘꽃’ 이면 토목사무관은 ‘금꽃’

흔히들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6급)을 두고 행정의 ‘꽃’이라고 부른다.

분청 과장급으로 읍·면장 보직을 받는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관은 중앙부처의 실무자급과는 달리 고급간부로서 6급이하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자와 사무분장, 전결권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시설직(토목직)에 대한 인기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중요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에서는 군 단위 건설도시과장을 두고 ‘건설 군수’라고 부를 정도로 실제 중의 실세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군의원들 마저도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따기위해 건설과장과 내통(?)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장흥군 인사에서 서기관·사무관 이하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설직에 대한 승진



김용기 전남지역본부

우대로 장흥군 공무원사회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 뒷말이 많다. 직렬 중 가장 많은 행정직과 보건·간호직렬에서 승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시설직에서 서기관과 사무관 3명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장흥군 산하 정규직은 행정직을 포함 총 27개 직렬에 630여명이 있으며, 이들 가

운데 토목직 공무원의 사무관급 간부 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선 단체장 때는 볼 수 없던 일로 시설직 강세는 선출직 단체장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시대적 변화라고는 하지만 특정 직렬에 치우친 지방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자치 행정직을 포함해 대다수 직렬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선심용카드로 시설직을 챙기기가 보다 조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렬들도 고루 배치하는 인사가 만사가 아닐까 싶다.

/kyk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대 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99번지 토지 : 1749㎡(529.1평) **감정가 1억4천5백만원 최저가 1억4천5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